

# 민주노총, 투쟁의 달 선포...“매년 2400명 산재 사망”

“매년 500명 넘는 노동자 과로사로 사망”  
“중대재해법·노동시간·마트의무휴업 개약”  
“윤 정권, 노동자 안전히 일할 권리 후퇴”

민주노총이 이달을 '생명안전 후퇴·개약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로 선포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개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념해 매년 4월을 투쟁의 달로 선포하고 투쟁을 벌여왔다. 이들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일터에서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노총은 윤 정권이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시간 개약, 마트 의무휴업일, 화물 안전운임제 폐지 등으로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개인의 과실이 아닌 기업에 의한 범죄이고, 최고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제정) 가능했다”며 “그러나 윤 정권은 중

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연내 법 개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여전히 중대재해는 반복되고 있고, 기소된 기업은 14곳에 불과하다. 처벌받은 기업은 전무한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개정안을 논의한다면, 이 법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약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일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실질 임금까지 삭감해 노동자 건강권·생존권을 파괴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루 14시간 일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내걸었던 화물 안전운임제가 폐기됐다”며 “가족과 한 달에 단 두 번 주말 휴일을 보낼 수 있는 시간마저 빼앗는 마트 의무휴업일 조례 개약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생명안전 개약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부터 울산·대구·경남에서는 서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19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한다. 27일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한다. 최이슬기자

## 사람 무는 위험한 개, 안락사 법제화 검토

일반견도 공격성 평가해 안락사 명령  
농식품부, 법제화 위한 연구용역 계획

사람을 공격한 위험한 개에 대해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보험 가입과 함께 맹견 공격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2024년 4월부터는 해외에서 맹견을 들여올 경우 수입신고를 의무화 하는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 여기에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00만을 넘어서는 등 안전한 양육 문화 조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행 동물보호법과 별도로 맹견 관리에 대한 요구도 크다. 현재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강제 조치를 담은 규정이 없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대해 서면 강제로 격리 조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개물림 사고 예방 차원에서 맹견 외에 사람을 공격한 일반견도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사람을 문 개에 대한 안락사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조만간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환기자

## 유모차에 부딪혔다고...“진단서 끊겠다” 황당 부부

벚꽃 구경 도중 충돌한 행인에 연락처 요구해

벚꽃 구경 도중 유모차와 부딪힌 여성이 아기의 부모로부터 “진단서를 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연을 전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기 유모차와 부딪혔는데 진단서를 끊겠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부부나 부모님들 입장이 궁금해서 여기 쓴다”며 “오늘 낮에 작은 삼거리 쪽을 걷다가 트러블이 있었다. 주말이라 길에 자전거랑 꽃을 보러 나온 사람들 때문에 살짝 복잡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제가 급하게 움직이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유모차 바퀴에 발이 걸리다시피 부딪혔다. 심한 충돌은 아니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한 뒤 지나가려는데 저를 부르더라”며 “그쪽은 부부였는데 그중에 아기 엄마가 “그리고 가시면 어쩌냐”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A씨를 향해 “아

이가 어리데 다쳤나고도 안 물어보냐. 부딪힐 때 유모차가 흔들려서 유모차 기둥에 얼굴이 라도 부딪혔으면 어쩔 거냐”, “뽀비는 시간에 조심성 있게 다녀 달라” 등의 항의를 했다. A씨는 심한 충돌이 아니라고 생각한 탓에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A씨는 “옆에서 아이 아빠가 엄마에게 귓속말처럼 몇 번 뭐라고 말을 했다”며 “그때마다 엄마가 저를 나무라더니 나중에는 상기된 얼굴로 연락처를 남기라고 길길이 뛰더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아이를 데리고 가족끼리 나왔다가 속상했다 싶었지만 솔직히 길에 서서 그 정도로 언쟁하기엔 아이도 너무 얌전히 있었고 부딪혔다고 울지도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후 A씨는 연락처를 달라는 여성의 요청에 “속상하신 건 알겠는데 연락처까지 드리고 가야 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나 여성은 “진단서를 끊어줘야 한다”, “아이들은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병원에 가기 전에 티도 안 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 역시 A씨에게 “연락처를 주고 가라. 어차피 길마다 CC(폐쇄회로)TV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A씨는 “말을 무시하면 도망가는 것 같아서 전화번호를 주고 왔는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며 “유모차 부딪힌 걸로 서너 번 죄송하다고 했으면 된 것 같은데, 진단서를 끊어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모르겠다)”, “치료비를 달라는 건가. 아이는 정말 다친 곳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유모차 안에서 자는지 깰는지 노는지 구별도 안 될 정도로 얌전했다”고 물었다. A씨의 사연은 22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저걸 지금 교통사고로 취급하는 거냐. 그럼 유모차도 바퀴가 달렸으니 차인가”, “괜한 트집 잡아서 보상을 요구하면 신고하는 쪽이 빠르다”, “부모의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확실하다. 아무래도 A씨가 잘못 걸린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